

민선8기 1년, 문화도시 광주, 길을 묻고 답을 구하다! 포럼 결과

□ 개요

- 일시/장소 : '23. 7. 5.(수) 15:00~18:00 / 전일빌딩245 시민마루(4층)
- 내 용 : 정책포럼(1부) 및 문화경제부시장과의 이야기 마당(2부)
- 주 최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예총, 상상실현네트워크
- 협 력 : 아문도시활성화시민연대, 광주광역시 민관협치문화예술분과

□ 진행순서

구분	시간	내 용
1부 정책포럼 사회 : 한 선 (호남대학교 교수)	15:00~15:15	민선8기 성과 및 과제 발표 : 문화체육실장
	15:15~15:25	지정토론 : 전고필(영암문화관광재단 대표)
	15:25~16:00	패널토론 : 김광욱(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두용(청년문화허브 대표), 장도국(연극배우)
	16:00~16:20	토론 종합답변 및 기타 참석자 의견 나눔
2부 문화경제부시장 과의 이야기마당 사회 : 김태진 (주)동네죽인 대표)	16:30~16:35	인사말 : 문화경제부시장, 정찬일 광주민예총 회장
	16:35~17:35	주제 중심 문답식 이야기 나눔(이야기 손님 4명) 전고필(영암문화관광재단 대표): 문화행정 혁신 정진삼(광주장애인문화협회장): 장애인 문화정책 정양주(광주민예총 부회장):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이순학(잇다 대표): 청년문화정책
	17:35~18:00	문화경제부시장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눔 : 기타 참석자

□ 현장사진



1부 정책포럼



2부 문화경제부시장과의 이야기마당

□ (1부) 정책포럼(민선8기 1년, 문화정책 성과와 과제) 진행결과

【발표】 민선8기 1년, 문화정책 성과와 과제 : 문화체육실장

- ▶ 문체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시 전체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시민만족도와 참여도는 낮은 편이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추진 등 **예술정책 중심에서 수요자 균형 정책으로 방향 전환**
- ▶ 민선8기 문화유산자원과 신설, 고대-근현대-현재-미래를 연결하며 **스토리가 있는 진정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핵심역할을 해나갈 계획
- ▶ 일상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 아트벙커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광주캠퍼스 개교 등 **시민이 문화 주체가 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 발굴할 예정
- ▶ 도심 곳곳에 활력이 넘치는 **문화예술 행사 융복합**을 통해 상반기는 광주비엔날레를 중심으로 아트피크닉, 대인예술시장, 예술의 거리 등이 어우러지고 하반기는 디자인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미디어아트페스티벌, 프린지페스티벌이 함께하는 등 시민들에게 연중 즐거움을 선사
- ▶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를 기반으로 **송암산단을 문화디지털단지화**하여, 첨단영상 등 G-콘텐츠를 광주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
- ▶ 앞으로 오페라하우스, 국립현대미술관 미디어아트관 등 **도시를 브랜딩할 대표 문화시설 건립**과, '28년 아뜰사업 종료 이후를 대비하여 **아뜰사업 향후 방향성 정립**이 필요한 시점

【지정토론】 문화정책에 대해 : 전고필(영암문화관광재단 대표)

- ▶ **예술인 복지와 권리보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술인 권리침해와 피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간과하지 않아야 함
- ▶ 예술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예술영재교육원 개교**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지만, 더불어 영재교육을 받은 이들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역 예술대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위해 **향후의 진로 또한 함께 고민** 필요
- ▶ 아트피크닉, 대인예술시장, 예술의 거리 등 일상 속 문화향유를 위한 정책의 진일보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벤트 중심이 아닌 **예술인 중심의 정책**이 되어야 함
- ▶ **생활문화 아트벙커**는 광주시의 노력과 열정이 드러나는 유의미한 사업이며, 지정된 24개 공간의 성장에 더욱 매진하고 **향후 5개구 고루 참여도가 높아졌으면 함**

- ▶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는 비엔날레 재단 임직원들의 노고가 토대가 되었는데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을 극복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개선이 필요함
- ▶ 문화적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청사진은 좋으나 민관이 함께 고민하여 만들어나갔으면 하며, **문화유산자원과의 신설은 민선8기 성과중의 성과**이며 관련 전문직들이 고루 포진되었으면 함
- ▶ 보조금사업 개선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진전된 발전 가능성을 체감할 수 있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연차별실시계획 전문가 풀이 다양화되었으면 하며 민관정협의체 구성에서도 이 점을 고려했으면 함
- ▶ **예술인에 근본을 두고 더욱 발전하는 광주시의 문화정책이 되었으면 함**

【패널①】 민선8기 1년, 문화정책 성과와 과제 : 김광욱(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 전환**은 긍정적이지만 수요자 중심의 정책은 충분한 공급이 전제되어야 하며, 따라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예술 및 예술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진정한 수요자 중심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민과 의지가 필요함
- ▶ 광주시는 문화분야 데이터 기반 정책이 약한 편으로, 광주가 처한 현실을 잘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거(데이터) 기반의 문화정책**으로 전환 필요
- ▶ **아특별** 유효기간이 5년 연장되었는데 이 기간은 그동안 추진된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어야하며, 아특별 종료 이후 상황에 대해 차분히 논의를 이어가야함

【패널②】 심의제도 개선, Just do it : 정두용((사)청년문화허브 감독)

- ▶ 실제 공모사업 심사가 공정한지 아닌지가 아닌,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심사 공정성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에 주목하여 개선점을 찾아야 함**
- ▶ 현장의 고민과 목소리가 가장 많이 담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사 시스템 중 광주 상황에 적용가능 한 부분들을 도입해볼 필요 있음
- ▶ 각종 심의위원회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심의전문가 등록제** 운영, 심의위원의 **50% 이상을 광주 외 지역** 참여, 심사위원 안내사항 전달 등 시의 의지가 충분하다면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임

【패널③】 문화도시 광주, 길을 묻고 답을 구하다! : 장도국(연극배우)

- ▶ 민선8기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 도시' 조성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 개발 사업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일인지 고민해봐야 하며, 불공정하고 불안정한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구조개선 정책**이 꿀잼 도시 조성만큼 집중되어야 할 것임
- ▶ 올해 2월 광주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방안을 자세히 명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앞으로 검토하고 보완해주었으면 하며, 시행규칙 마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함
- ▶ 문화다양성과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문화예술의 환경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관, 시대정신 등에 주목**하고 그에 맞는 문화정책을 추진해나갔으면 함

【토론 종합답변】 문화체육실장

- ▶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은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이며, **예술인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광주캠퍼스 등 지역에서 예술교육을 받은 인재가 잘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예술 분야의 여러 진로와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 ▶ **비엔날레 재단**은 인원의 특성상 관련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쌓기를 원하는 등 이직률이 높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근무하는 동안 **역량을 잘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으로 조직운영할 필요 있으며, 또한 2년 단위로 열리는 비엔날레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비엔날레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는 시민도슨트 교육 등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비엔날레를 위해 지속 관심과 육성** 도모
- ▶ 문화유산자원과의 인력은 시 전반적인 인력배치 상황을 고려하여 구성되며, 해당과의 역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 **보조사업 심사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도 인력풀을 통해 무작위 추천 방식을 적용하여 위원 구성을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한계가 있을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방안 등 **보완가능한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문화예술회관**은 단순히 명칭변경만이 아니라, **민선8기 새로운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좀 더 지켜봐주시길 바라며

【기타참석자 의견】

- ▶ 문화기반시설 건립보다 앞으로는 동네 곳곳에서 주민들이 문화를 체험하고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하며, 그 중 하나로 작은도서관에서도 문화향유의 일부가 이루어지는데 실제 각 자치구의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 있음

□ (2부) 문화경제부시장과의 이야기마당 진행결과

【이야기손님①】 문화행정 혁신 : 전고필(영암문화관광재단 대표)

(질문1) 향후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에 지역 출신 인재가 선임될 수 있을지? 비엔날레 28년 역사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등을 통해 광주는 미술도시로 자리매김, 앞으로는 타 지역이나 해외가 아닌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예술감독으로 선임되어 진정한 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갔으면 함

▶ **답변** 세계인이 주목하는 국제 예술행사인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가진 자로 선임하고 있으며, 감독 선발 경쟁은 국내외 예술인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예술인 모두에게 기회가 공정하게 열려있음

(질문2) 광주전남연구원의 문화관광 전문연구 인력 부족에 대한 대안은?

▶ **답변** 광주전남연구원은 민선8기에 전남연구원과 광주연구원으로 분리되며 총 연구 인력은 16명, 문화관광 분야는 2명으로 출범될 예정으로 타 분야에 비해 적은 인력은 아니며 향후 연구분야별 적정규모를 고민하는 등 연구원의 역량을 높여갈 예정

(질문3) 광주학, 호남학 등 세세한 것부터 포괄적인 것까지 광주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신설된 문화유산자원과에서 가교역할을 잘 해주었으면 함

▶ **답변** 포괄적인 관점에서 광주의 문화유산과 자원에 관해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자원과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지 고민해나가겠음

【이야기손님②】 장애인 문화정책 : 정진삼(광주장애인문화협회장)

(질문1)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건립 국비요청 진행상황은? 장애인 관련 개별 센터는 있지만 장애인문화예술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실정

▶ **답변** 장애인문화예술센터만이 아니라 우리시 전반적으로 새로운 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사항으로, 새롭게 건물을 세우는 것 보다는 기존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공간을 재배치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 필요

(질문2) 광주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중인 광주형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 관련, 창작센터 보듬 접근성 문제 등 향후 방안

▶ **답변** 람 호텔에 위치한 창작센터 ‘보듬’은 타워형 주차시설 등 단점이 있어 새로운 공간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위치는 시내권이어서 접근성 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며, 창작공간 이용 등 모든 장애예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으며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해나가겠음

【이야기손님③】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 정양주(광주민예총 부회장)

(질문1) 광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공연 예술을 집중 발굴하고 지원하여 매 주말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공된다면, 더욱 다채로운 문화도시 광주가 되지 않을까?

▶ **답변** 광주공연마루에서 진행되었던 국악상설공연을 올해부터는 장르를 개편하여 국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 대해 상설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광주만의 스토리를 담은 공연의 경우 예를 들면 뮤지컬 광주를 압축해서 상설공연화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있으며, 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관광공사로 통합하고 나면 상설공연을 유료화하는 방안,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매주 작품이 펼쳐질 수 있는 방안도 좋을 것으로 보임

(질문2) 예술단체의 공간은 함께 모여 있어야 정보교류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 **답변** 여러 문화예술단체의 교류를 위한 적절한 공간을 찾아야 할 필요성은 공감하며, 다만 적절한 유휴공간 활용방안 등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음

(질문3)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 광주문학관은 광주만의 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5·18주간은 오월 문학을 중심으로 전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광주문학관 운영 방향성은?

▶ **답변** 광주문학관은 광주를 대표하는 용아 박용철, 다형 김현승 등 네 분의 문학과 오월 문학까지 총 5개관으로 상설전시관을 운영하며 나머지 특별전시관은 상황에 따라 전시를 구성할 예정임

【이야기손님④】 청년문화정책 : 이순학(잇다 대표)

(질문1)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올해 10%씩 삭감, 향후 예산규모를 늘릴 수 있을지?

▶ **답변** 전체 시 예산규모로 보았을 때는 산업 분야 예산 삭감 비율이 더 높은 편이며, 또한 타 시도 대비 우리시가 문화예술 예산 비중이 높는데 반해 시민 만족도는 낮은 편이어서 단순히 예산의 규모만 늘리는 것이 아닌 시민체감형 사업을 만들어가는 것과, 국비사업의 경우 더욱 폭넓은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특회계 외에 일반회계 예산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임

(질문2) 지역에서 상생협력할 수 있는 일자리, 단편적인 청년 일자리 지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인 청년 일자리 지원 계획이 있는지?

▶ **답변** 청년들이 일반 생태계 안에서 경쟁하며 성장해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년일자리는 정부의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단기 일자리로 광주에 적합한 제도를 발굴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현재 추진되는 사업으로는 생활문화 아트벙커를 앞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여러모로 청년단체에게 좋은 방식이지 않을까함

【기타참석자】 문화경제부시장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눔

(참석자1)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등 선정 시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여 성장발전을 통해 해외 진출까지 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 필요하며, 이를 통해 광주가 세계적인 예술가가 많이 배출되는 도시로 성장하길 바램

▶ **답변** 비엔날레 예술감독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실력있는 인물을 경쟁 안에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역의 역량있는 인물을 발굴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서는 그렇게 해나가겠음

(참석자2) 광주만의 역사가 담겨있는 대중문화와 대중음악 활성화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답변** 음악산업진흥센터, 영상복합문화관의 독립영화관, 광주극장 등 대중문화와 음악산업을 위한 공간 및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순수예술을 넘어 대중예술까지 전반적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더욱 기울이겠음

(참석자3) 문화 창출의 일부를 도서관이 담당하며 그런 의미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가 필요, 그러나 아파트 등에 마련된 사설 도서관은 예산과 인원 등의 문제로 제대로 운영되기 힘든 상황인데 활성화할 방안이 있을지?

▶ **답변** 사설 도서관에서 신청시 자원봉사 인건비, 책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운영중이며, 다만 한 개소당 지원금액이 약 5백만원에 불과하여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제도 정비를 고민해볼 필요 있음

(참석자4) 시립사진전시관은 지속 존립되어야 하며,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광주의 변화상을 사진으로 기록할 필요 있으며, 5.18 사적지에서 기록 작업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두었으면 함

▶ **답변** 사진전시관을 관람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더 좋은 대안 공간이 있다면 이동을 고려해볼만 하지만 현재 당장의 문제는 아니며, 광주의 변화상을 사진으로 기록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5.18 사적지를 열어두는 것이 창작에 필요한 일이라면 방법을 찾아볼 필요는 있다고 봄

(참석자5) 문화재 보유단체에 대한 심의는 공개성이 낮아 세부 상황에 대해 알기가 어렵고, 광주문화재는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단체를 위한 무대나 기회 부족 등 형평성과 공정성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며, 문화재 단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함

▶ **답변** 문화재위원회 특성상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전통문화관과 개관예정인 회경루 외에도 일반 행사나 여러 상황에서도 문화재로 지정받으신 분들의 공간과 기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